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보살님들께 이 꽃을 바칩니다



석운(石雲) 정은영(鄭恩泳)선생의 호점도.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나비를 함께 그렸다. (에이육선 제공)

한국 사찰의 사부대중 가운데 승가를 제외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중은 단연코 우바이(優婆夷)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불교국가 가운데서 여성 불자를 부처님 다음가는 지위인 '보살'이라고 명명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 여성들은(보살이라 부르겠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병을 하나 가지고 있다. 바로 화병(火病)이다. 화병은 사전에 등재될 만큼 외국의 학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정을 돌보고 시부모를 모시며 쌓인 스트레스와 욕구불만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것이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 병을 사하기 위해 여름이면 많은 보살들이 냉면과 팔방수 등을 먹으며 화를 풀기도 한다. 또 사찰에서는 예불·참선·108배 등 수행과 봉사 활동을 통해 신생활을 돈독히 하는 보살들도 있다.

우리 여성불자들에게 소개하고픈 꽃이 있다. 바로 원추리꽃이다. 원추리꽃의 한문이름은 흰초(萱草)이다. 어머니들이 거처하는 내당에 이 꽃을 주로 많이 심었기에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를 때 흰당(萱堂)이라고 불렀다.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흰(萱)은 '님나물'이라 부르기도 했다.

원추리는 대개 노란색으로 오방색의 중심이 되는 색이다. 옛 사람들은 "부녀자가 머리에 원추리꽃을 꽂고 있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원추리 꽃봉오리가 남자아이의 고추를 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남화(宜男花)는 남근 숭배사상에서 유래했고, 꽃이 지고 나면 전체가 오무라져 붙어버리기 때문에 합환화(合歡花)라고 부르기도 했다.

원추리 나물은 많이 먹으면 취해서 의식이 몽롱하게 되고 무엇을 잘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근심 걱정까지 날려 보내는 꽃이라 해 망우초(忘憂草)라 했다. 원추리에는 항우울증 치료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으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초로 알려져 있다.

원추리는 옛부터 봄의 대표적인 맛있는 산나물의 하나였다. 이때는 '닐나물' 또는 '님나물'이라고 따로 이름이 주어져 있다. 옛날에 님나물

근심 걱정 날리는 노란색꽃 원추리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증에 효과 커

은 정월대보름에 님나물국을 끓여먹는 민속까지 있던 귀한 식물이다. 또 꽃술을 제외하고 밥을 할 때 넣으면 향기가 나면서 예쁘고 노랗게 밥을 물들인다.

님나물은 맛이 달고 연한, 매끄럽고 감칠맛이 나는 순하고 단백한 산나물이다. 님나물의 어린순을 따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치면 별미인데 이 나물을 흰채(萱菜)라 한다. 원추리는 어린싹을 생으로 국거리로 이용하며 튀김으로도 요리하고 데친 것은 기름에 볶기도 한다.

(본초강목)과 (일화본초)에 의하면 원추리의 꽃과 싹은 독이 없어서, 삶아 먹으면 황달이 치료되며, 소화를 도우며 습열(濕熱)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외에도 원추리의 뿌리는 결석을 다스리고, 수기(水氣)를 내리며 술독을 풀고 (<본초습유>), 뿌리를 생즙으로 만들어 마시면 코피가 나는 것을 멎게 하고 열을 내리며 (<본초연의>), 유선염에도 효과가 있다 (<본초강목>). 이외에 여러 의서(醫書)에서 원추리의 효능을 기록하고 있다.

석운(石雲) 정은영(鄭恩泳)선생(1931~1988)의 그림에는 왜 원추리와 나비가 함께 그려졌을까? 그것은 나비가 장수(長壽)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나비 접(蝶)과 늪이 절(蠶)자는 중국어로 발음이 같다. 지금이야 약의 발달하고, 생필품이 구족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60세 이상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80세까지 사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한국불교의 다정한 도반인 보살님들이 부디 수행과 신생활을 통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불교가 세세생생 보리심과 출리심(出離心)을 깨치고 이루는 인류의 영원한 보고(寶庫)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바친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부처님 근처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서럽고도 서러운 업일까. 어머니를 안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났다.' 박완서의 단편 <부처님 근처>에서 주인공이 22년 만에 아버지와 오빠의 첫 제사를 모시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신의 무릎에 누워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는 생각이다. 책에서 주인공과 그녀의 어머니는 오랜

세월 가슴 속에 얹어매고 살았던 가족의 서러운 죽음을 온전한 죽음으로 회향하기 위해 절을 찾고, 절에 머물며 제사를 올리는 동안 많은 사유를 한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 근처에 살고 있다. 무엇에든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손닿을 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놓이는 일인가. 죽음이 삶의 근처에

있고, 삶 또한 죽음의 근처에 있다고 보면 우리가 부처님 근처에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가. 집 근처에서 지는 해는 황홀한 노을이지만 집을 나와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머물 곳을 찾아야 하는 어둠의 시작일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 근처에 있음이, 부처님이 집 나온 모두의 근처에 있음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각상 조선 백곡처능 선사 '봄날 임 스님에게 보냄[春日寄林師]'

텃 빈 충만

春來幽興十分加 (춘래유흥십분가) 古調誰知白雪歌 (고조수지백설가) 童子荷薪煮早蕨 (동자하신조조검) 老僧將鉢種新茶 (로승장보종신차) 床頭高枕水聲遠 (상두고침수성원) 簾角卷簾山色多 (렴각권렴산색다) 庭院深深人不寐 (정원심심인불매) 滿階花影自橫斜 (만계화영자횡사)

봄이 되자 그윽한 흥취 더욱 더해지는데 옛 곡조는 백설가임을 누가 알리오 동자는 삶을 지고와 올 고비를 살고 노승은 삼을 들고 햇 차를 심네. 침상머리 높은 베개에 물소리가 멀고 처마 끝 걷은 발에 산 빛이 가득하네. 절 안이 깊고 깊어 아무도 안 자는데 뜰 가득 꽃 그림자 절로 비스듬히 비껴있네.

백곡처능(白谷處能: ?~1680) 스님은 유불을 겸한 학문과 시문을 통한 당대의 거유(巨儒)들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탄압이 극심했던 당시 한 소통의 길을 탐구했다.

에 소속된 재산을 몰수하며 승려를 환속시키기에 이르렀을 때, 스님은 8만 여자나 되는 <간폐석교소(諫廢釋教所)>를 지어 그 부당함을 상소했다. 조선시대 불교역언에 대한 유일한 상소문이었다.

說)의 같고 다름을 대비해 설명하거나 인의(仁義)에 대한 유불의 견해가 결국 일치한다는 유불불이를 주장했다.

현종이 두 공주를 잃었을 때는 붕국사를 지어 위로했고 선종종심사찰인 불은사를 중수하기도 하는 등 불법 보호의 한 힘이 됐다.

이 모두가 선교, 유불에 정통하고, 특히 시문에 능했기에 가능했다.

수련에서는 시의 제목을 풀이하면서 임 스님에게 보낸 그윽한 흥취가 격조 높은 백설가임을 보여 은근하게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임을 밝혔다.

현령에서는 봄날을 맞이하는 자신의 삶, 경연에서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색과 소리로 표현해 냈다. 미련에서는 깊고 깊은 정원의 고요함을 비스듬히 비껴 있는 꽃 그림자로 극대화 시켜 놓았다.

시의 전편에 흐르는 그윽한 시정(詩情)은 햇차를 심는 노승의 마음 빛이기도 한 텃 빈 충만 그것이다.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다라니 福 지갑 advertisement. Features images of a black and a red wallet. Text: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봉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advertisement. Features an image of a golden tassel. Text: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 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방 밑에서도 흥을 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자해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순창 왕실 고추장 advertisement. Features an image of a woman in traditional Korean clothing. Text: 순창 왕실 고추장. 인녕하십시오? 4대 전통의 손맛을 이어받은 제조기능인 김경순입니다. 저찌 왕실고추장은 순창의 자연과 4대 전통의 손맛, 그리고 재래식 전통방식이 어우러져 장인의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왕실고추장은 여러분의 식탁에 만족과 기쁨을 드리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대에 내려오는 장인의 명예와 왕실고추장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의 입맛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전통왕실고추장 제조기능인 김경순 올림. 김경순 명인의 모듬 장아찌 1kg 33,000원, 김경순 명인의 오이 장아찌 1kg 22,000원, 김경순 명인의 배싯 장아찌 1kg 44,000원, 김경순 명인의 굴비 장아찌 1kg 140,000원, 김경순 명인의 마늘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도라지 장아찌 1kg 33,000원, 김경순 명인의 김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고들배기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무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찜외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맛김 장아찌 1kg 27,500원. 구입문의 : 왕실고추장 02)879-2007.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온라인 및 카드 구매가능 : www.checkbox.co.kr 에서 상품 검색 후 구매가능. 선물세트 홈페이지 검색 및 전화상담 환영.